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호 (2024.01.12)

- 이슈
(국제) 2024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글로벌 경제·산업 트렌드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호 (2024.01.12)

Cotents

I. 이 슈

(국제) 2024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글로벌 경제·산업 트렌드 1

II.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고용)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 2024년부터 확대·개선해 시행 11

(투자) '24년 R&D 예산 확정, 신진연구자·기초연구·전략기술 지원 강화 11

(산업) 우리나라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 가속을 위한 민관 공동 투자 실시 12

(금융) 금융위, 2024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소개 12

(교육) 교육부, 2024년부터 적용되는 교육제도 변경 사항 소개 13

(금융) 중기부,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발표 13

(복지) 보건복지부, 2024년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책 발표 14

(노동) 법무부, 2024년부터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운영 14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상민경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국제

2024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글로벌 경제·산업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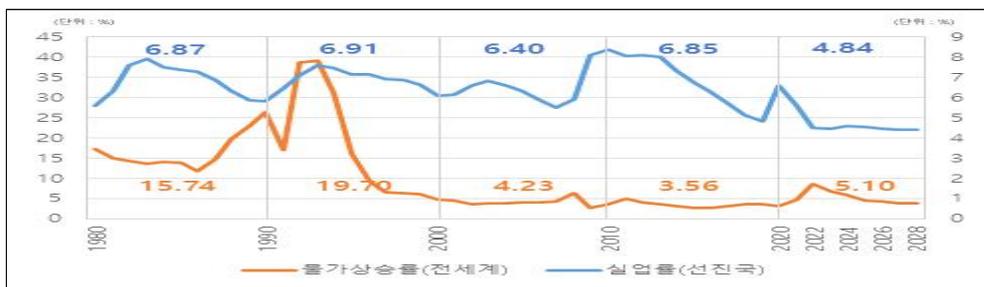
#2024년 #경제·산업 #글로벌 트렌드 #사회변화 #기대와 우려

- 2024년을 맞아 인천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국내외 산업 전망 및 트렌드 분석 자료 등을 참고하여 개인과 기업의 일상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적인 경제·산업 트렌드를 선정
 - 기술 발전과 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개인·기업이 마주하는 환경이 다방면에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보다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해 △거시경제 △과학·기술 △보건 △산업 △환경 등 글로벌 트렌드의 5개 부문을 설정
 - 거시경제 부문에서는 국가 경제 및 가계·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 및 고금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대와 우려를 점검
 - 보건 부문에서는 최근 주목받는 헬스케어 치료제와 관련한 현황과 전망을 검토하고, 산업 및 환경 부문에서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트렌드와 탄소중립 정책 관련 동향을 제시

[표 1] 2024년 글로벌 경제·산업 트렌드

분야	주제	주요 내용
거시경제	No landing 시나리오 : 고금리 환경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 제기 • 향후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가계·기업의 위험 점검이 필요
과학·기술	생성형 AI, 그 빛과 그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분야와 융합·활용되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기대 • 생성형 AI 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위협요인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 확산
보건	바이오기술의 발전에 따른 시장선점 경쟁 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만/당뇨/노화/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신약에 대한 기대감 • 유전자 편집가위를 통한 난치/희귀병 치료 가능성
산업	개인화를 넘어선 초개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및 AI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 맞춤형 비즈니스의 발달 • 개인정보 침해, 필터 버블 현상 등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우려
환경	탄소중립 정책의 진전과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코소비, 업사이클링, ESG 등 개인·기업 단위의 탄소중립(친환경) 활동 실천 확산 • 그린래시(Greenlash)로 대표되는 탄소중립 정책·활동에 대한 반발 확산

- **(거시경제)** 최근 전 세계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이 둔화함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 역시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정학적 긴장 및 공급망 불안 등 대외경제적 불안 요인으로 인해 앞으로는 과거 저물가-저금리 시대로의 회귀는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전망이다
 - 2021년 하반기 이후 급격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2023년 들어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이 둔화하기 시작
 - 미국의 경우 2020년 3월 이후 0.125% 수준을 유지하던 정책금리를 '22년 3월부터 '23년 7월 사이 5.375%까지 상향 조정 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 역시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
 - 그러나 △지정학적 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유가 △기후재난 △인구 고령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약세 등 국제경제의 리스크로 인한 물가 상승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세계 경제가 고(중)물가-고(중)금리가 지속되는 노랜딩(No-landing)¹⁾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 존재
 - 2022년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및 대만의 선거 결과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역시 지정학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
 - △신산업·혁신기술·원자재 등 신산업 관련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서 촉발된 글로벌 디리스크잉(de-risking)·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에 따른 공급망 불안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식품 물가 불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부족 현상 등이 물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경제의 느린 회복에 따라 중국에 의존하는 신흥국의 경제 불안도 장기화
 - 한편 세계 경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경제가 강한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물가 둔화와 안정적인 고용 지표 및 명목 임금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대두
 -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고물가로 인한 비용 증가에 따라 가계의 소비심리 및 기업의 투자 위축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금리로 인한 위험 가계·기업이 증가세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어 국가(지역) 내 소비·투자 활성화 정책 및 위험 가계·기업 대상 모니터링 수행이 필요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3.10)

* 주1 : 물가상승률 값은 IMF Database에 포함된 196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실업률은 41개 선진국²⁾을 대상

2 : 그래프 위 글자는 각 연도 구간별 평균을 의미하며, 2023년부터는 전망치를 사용

[그림 1] 글로벌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선진국 실업률

1) 노랜딩(No landing)은 경제가 침체나 소강상태에 빠지지 않고 상당 기간 호황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가 호황에서 둔화로 사이클이 변함에 따라 연착륙(Soft landing)과 경착륙(Hard landing) 중 어느 방향이 될 것인지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침체 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대변.

- **(과학·기술)** 챗GPT(ChatGPT)로 촉발된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는 생성형 AI의 개발과 다양한 활용에 이목을 집중하는 동시에, AI와 관련한 사회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 및 규제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
 - 2022년 말 생성형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³⁾인 챗GPT가 시장에 등장한 이후,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자사만의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활용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면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
 - Open AI의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인 챗GPT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네이버(하이퍼클로바X), 구글(PaLM), 마이크로소프트(Copilot), SKT(에이닷), 카카오(코GPT), 아마존(Titan), 메타(LLaMa) 등 전 세계 주요 빅테크기업이 자사만의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출시
 - IT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빅테크기업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텍스트(마케팅·작문·기타) △동영상(영상 편집·맞춤 영상) △이미지(생성·광고·디자인) △코딩(코드 생성·데이터 분석) 등 특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
 - 최근 빅테크기업은 생성형 AI를 넘어서는 ‘멀티모달(multi-modal) AI’⁴⁾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 중
 - 한편 누구나 쉽게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이버 테러, 피싱 및 딥페이크, 개인정보유출 등 다양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편향된 데이터 학습으로 인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증가하여 AI 사용 윤리 및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및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산될 전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12)에 따르면 2024년에는 오픈소스 개발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지능형 지속공격(APT)⁵⁾ 기반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복합 공격이 확대되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개발된 악성코드나 피싱 이메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범죄 등으로 인한 사이버 위협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
 - 인공지능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AI 모델의 빅데이터 학습을 통한 결과를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서비스 개발자 및 제공자가 자사의 AI 학습시킬 때 어떤 자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별 △인종 △빈부 △직업 등에 따른 차별적 시선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존재
 - 이에 산업계·학계 및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는 AI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AI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AI 자체에 대한 리스크 및 보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AI의 개발과 활용에 관해 감독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⁶⁾

2) IMF의 선진국 그룹에는 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특별행정기구(SAR),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특별행정기구(SAR),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Province of China), 영국, 미국 등 41개 국가가 포함.

3) 생성형 AI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합성 데이터 등 기존의 콘텐츠를 학습함으로써 기존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창작물을 생성하는데 특화된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

4) 멀티모달 AI란 텍스트를 포함한 이미지, 음성, 영상, 표정 등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다중지능처리 알고리즘과 결합해 더욱 복잡한 과제를 처리하는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의미.

5) 지능형 지속공격(Advanced Persistent Threat, APT)은 조직이나 기업을 표적으로 정한 뒤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지능적 해킹 방식. APT는 실시간으로 해킹 공격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악성코드를 숨겨 놓았다가 시간이 지난 뒤 동시에 작동시키는 수법으로, 스위치를 눌러 한꺼번에 폭탄을 터뜨리는 것에 비유.

6) Forbes(2023.12), 가트너(2023.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12), The Economist 등 참고 후 재구성.

국가	규제 현황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보호당국이 규제 관련 TF를 설치 · 새로운 AI 규제법을 검토하고 연내에 역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 · * AI 리스크를 4단계로 구분(생성형 AI 등은 리스크가 높은 AI로 분류)하고, 리스크가 높을 경우 공개된 안전성 측면 등에서 평가를 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 · **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개인정보보호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도 검토 · 기존 규제: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권리 및 원칙에 관한 선언'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해 규정 · 다만 EU 내에서도 국가별 입장차가 존재함. 이탈리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로 ChatGPT 사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슬로베니아 등은 산업 육성 측면에서 규제에 신중한 입장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무부에서 AI의 감사 및 평가 방식, 설명 책임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 · 기존 규제: 'AI 권리장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대해 규정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정책을 담당할 사령탑을 설치하고 'AI 전략회의'를 개최하며 논의를 시작 → 저작권 및 개인정보의 취급 등 규제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규제: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办法)' 의견수렴 → 사회주의 체제의 전환 및 국가 분열을 선동하는 내용 금지

*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05)

[그림 2] 생성형 AI 규범 관련 주요국 입장(좌) 및 규제 추진 현황(우)

- (보건) 바이오기술의 발달에 따라 바이오 의약품)과 유전자 편집 기술에 기반하여 비만, 탈모, 치매, 희귀유전적 질병 등 기존에 치료가 어려웠던 질병들을 정복하고 시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바이오산업계의 시도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
 -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등 바이오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정보통신기술 및 나노기술 등 신기술이 융합되면서 바이오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산업의 범주도 점차 확장(LG케미토피아, 2016)⁸⁾
 - 의학 분야의 경우 유전공학과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질병을 조기에 예측하거나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진단·치료법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코로나19 엔데믹 전환과 함께 잠시 위축되었던 제약 시장이 '24년에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모델 겸 배우 김 카사디안 등 해외 셀럽들의 사용 후기로 이슈가 된 비만치료제 위고비(Wegovy) 이후 글로벌 제약사들이 바이오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당뇨치료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등 다양한 신약 개발에 몰두
 - 이외에도 선천적 유전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DNA)를 유전자 가위(CRISPR-Cas9, 프라임 에디팅 등)를 이용해 잘라내는 방식 또는 유전자 전달체를 이용해 유전자를 대체·교정하는 방식의 치료법 연구가 화두
 - 우리나라 역시 최근 식약처 '생물학적제제 등의 허가·심사 규정'에 생균치료제가 생물학적제제에 추가되면서 임상시험 및 제품화 지원이 확대되고, '인공지능·첨단바이오 전략로드맵(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수립되는 등 바이오산업 관련 정부 지원이 강화
 -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 지원이 세계 주요국 대비 미미한 수준이며, 국내 업계의 기술력 역시 세계시장 대비 늦은 편이기 때문에 정부 및 업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

7) 사람 또는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를 기반으로 유전자 재조합, 세포배양 등의 생물공학적인 기술을 이용해 생산하는 고분자량의 의약품을 의미함.

8) 바이오산업은 크게 △의학(레드바이오) △농업(그린바이오) △산업(화이트바이오) 등의 세 분야로 구분.

[표 2] 부문별 주요 신약 개발·승인 현황

구분	출시연월	제약사 및 국적	상품명	주요 기능
비만	2021	노보디스크(Novo Nordisk), 덴마크	위고비(Wegovy)	•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의 작용 시간을 증가
마이크로바이옴 ⁹⁾	2023.04	세레스 테라퓨틱스 (Seres Therapeutics), 미국	보우스트(Vowst)	• 대변 이식 대신 경구투약으로 설사병의 일종인 '클로스트리듐 디피실균 감염증(CDI)' 치료
당뇨	2023.06	셀트랜스(CellTrans Inc.), 미국	란티드라 (LANTIDRA)	• 성인 제1형 당뇨병 환자 대상 췌장 섬세포 치료제
혈우병	2023.06	바이오마린(BioMarin Pharmaceutical Inc.), 미국	록타비안 (ROCTAVIAN)	• 1회 투여로 환자 스스로 8인자를 생산하여 출혈 감소
치매	2023.07	바이오젠(Biogen)·에자이, 미국·일본	레캠비(Leqembi)	• 뇌에 축적되는 비정상 단백질 제거로 기억력 악화 속도 지연
낮형 세포병	2023.12	버텍스(Vertex Pharmaceuticals Inc.), 미국	캐스게비 (CASGEVY)	• CRISPR/Cas9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 태아 헤모글로빈(HbF)의 생성을 증진

* 자료 : 메디게이트 뉴스(2023.12.27)

* 주 : 출시연월은 해당 의약품의 미국 FDA 승인 또는 출시일을 기준으로 작성

○ **(산업) 소비자의 관심사 다양화 및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서비스산업과 시의 접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단순 취향을 넘어 개개인의 상황과 선호 맥락 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개인화(Hyper personalization)¹⁰⁾'가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로 부상**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의 가치관 및 취향이 다변화됨에 따라 개인의 관심사 및 신념에 따른 디토(ditto)소비, 에코(eco)소비, 초절약 등 복수의 마이크로 트렌드가 공존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변화되고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사용이 일반화
- 이에 산업계 전반적으로 소비자 개개인이 현재 필요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향후 잠재적인 서비스 수요까지 예측하여 사전에 소비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이 일상화¹¹⁾
- △(뷰티)로레알의 '입생로랑 루즈쉬르 메쥬르'¹²⁾ △(패션)잘란도(Zalando)의 가상 피팅룸¹³⁾ △(헬스케어)킵더허드 헬스케어의 '핏타민(Fitamin)'¹⁴⁾ △(금융)신행은행 '머니버스(MoneyVerse)'¹⁵⁾ 등

9)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은 물리·화학적 특성이 뚜렷하고 서식지가 확실히 정해진 미생물 군집을 의미하는 말로, 인체에 사는 각종 미생물을 의미.

10) '초개인화'란 나이·성별·구매정보 등 소비자가 제공한 기본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화(personalization)'를 넘어서 기존의 정보에 더해 소비자 개인의 관심사·상황·선호 맥락·인터넷 검색패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접목하여 1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트렌드를 의미.

11) KT 그룹의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기업인 나스미디어(Nasmedia)는 2024년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하여 디지털 마케팅 시장을 선도할 키워드 중 하나로 '초개인화 마케팅 고도화'를 선정.

12) 뷰티테크(Beauty-Tech)의 선두주자인 로레알은 개인의 피부톤, 얼굴 형태, 입술 모양 등을 분석해 맞춤형 립스틱 색상을 추천·제조해주는 AI 기반 스마트 틴트 디바이스를 출시.

13) 인공지능(AI) 기반 제품 추천 시스템과 3D 모델링을 이용한 증강현실(AR) 피팅룸을 구축하여 소비자 개인이 선택한 제품에 대한 개인 맞춤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반품률 감소.

14) 건강 분석과 약사 상담을 통해 개인에 최적화된 영양제를 제공하는 맞춤형 영양제 구독 서비스 플랫폼.

15) 인공지능(AI)과 마이데이터 정보에 기반한 고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동 플랫폼 활용시 은행·카드·보험·증권 등 200개 금융기관 연결을 개인의 금융 활동을 포함한 절세방법, 소비분석, 가입 보험/적금/대출 상품 분석, 신용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다양한 분야에서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

- 그러나 초개인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 △AI 딥페이크 위험성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¹⁶⁾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
 - 초개인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 및 활동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이용할 수 있게 동의해야 하기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남용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윤리 규정의 마련이 요구
 -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특정 정보만을 제공하여 고객의 정보접근성을 제한하는 필터 버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고 확증편향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 **(환경)**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파리협정¹⁷⁾을 채택하여 친환경(탄소중립)에 대한 목표를 함께 다졌으나, 최근 주요 국가에서 친환경 정책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며 2024년에는 친환경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증폭할 것으로 예상

- 파리협정 이후 개별 국가는 목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친환경 기조 확산에 따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업사이클링(Upcycling) 등 기업·개인이 실천하는 라스트 마일(last mile) 친환경 활동 역시 함께 확대
 - 이탈리아의 마갈디그룹(Magaldi Group)은 전력으로 전환가능한 모래 배터리를 개발했으며, 재생에너지 기업인 에넬엑스(Enel X)와 협업을 통해 2024년 하반기에는 동 배터리를 사용한 발전소를 가동할 계획
 - 네덜란드의 세이브지(Saveggy)는 식물을 활용한 100% 생분해 코팅제를 개발하여 식품 유통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전환이 진행 중
-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코로나19 팬데믹 △자연재해 △공급망 불안 △인플레이션 △금리상승 등 전 세계 경제가 불안정 상황에 들어서며 친환경 정책에 반발하는 '그린래시(Greenlash)' 현상이 확산¹⁸⁾
 -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더불어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비용 부담 및 국민 피로감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
 - 이와 맞물려 2024년에는 미국·EU이사회 등의 주요국을 포함한 세계 40여 개 국가에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정권 교체를 원하는 정치권과 맞물려 더욱 화제가 될 것으로 우려

16) 필터 버블(Filter Bubble)은 인터넷 정보제공자(대형 인터넷 정보기술(IT) 업체 등)가 개인 성향에 맞춤(필터링된) 정보만을 제공하여 비슷한 성향 이용자를 한 버블 안에 가두는 현상을 지칭함.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기업의 경우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고객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선호하는 정보를 위주로 UI(user interface)를 구성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음.

17)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선진국 및 개도국을 포함하는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으로, 2016년 11월부터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효됨.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C 이하로 조정하기 위해 2050년까지 순 탄소배출량이 0인 넷제로(net-zero) 상태에 이르는데 합의.

18) '23년 8월 영국 정부는 오염산업에 대해 예상보다 더 많은 탄소배출권 허용량을 제공하는 내용의 탄소거래제도 변경 사항을 발표했으며, 같은 달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의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법안 투표가 무기한 연기.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공약에서 원자력·석유·천연가스 생산 확대를 예고. 우리나라 환경부 역시 지난 '23년 11월 식당 및 카페의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및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의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실상 환경정책이 후퇴했다는 평가.

제조 >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 2023년 1월~11월 누적 기준 국내 자동차 생산 및 내수판매 대수가 전년동기대비 13.9%, 4.8% 증가한 가운데, '23년 11월 기준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 역시 전년동월대비 각각 21.0%, 3.8% 증가하여 수출 호조를 기록¹⁹⁾
 - 11월 국내 자동차 신규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5% 감소, 전월대비 8.5% 증가한 37.0만 대를 기록하였으며, 국내외 수요를 바탕으로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의 생산량이 크게 확대되어 1월~11월 누적 생산실적 388만 대를 달성
 - 내수의 경우 11월의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내수 확대 및 물가안정에 기여하여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하였는데, 친환경차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가 내수 확대를 주도
 -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차의 수출량이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²⁰⁾ 자동차 수출 대수는 전년동월대비 12.9%, 자동차 수출액은 21.5% 증가하며, 11월까지의 누적 수출액이 약 645억 달러로 사상 최고 수출액 기록을 경신

[표 1] 국내 자동차산업 생산, 내수판매, 수출 추이

(단위 : 대, 억\$)

구분	'23.04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생산 (증감률)	382,265 (24.7)	382,129 (24.5)	370,284 (12.8)	352,972 (8.7)	311,959 (9.7)	301,799 (-1.9)	341,019 (4.1)	370,145 (-2.5)
내수 (증감률)	149,374 (4.3)	152,190 (4.6)	162,699 (11.4)	136,089 (-5.0)	130,667 (-0.7)	133,709 (-4.7)	141,350 (-2.1)	160,476 (2.9)
수출 (증감률)	247,399 (25.7)	248,755 (36.0)	241,924 (39.8)	228,976 (2.4)	199,214 (18.5)	197,770 (2.5)	225,420 (8.1)	245,675 (11.9)
수출액 (증감률)	61.6 (39.9)	62.0 (49.5)	62.3 (58.1)	59.0 (14.9)	52.9 (28.4)	52.3 (9.2)	58.8 (19.7)	65.3 (21.0)
부품수출액 (증감률)	19.1 (-1.8)	19.4 (-1.0)	19.9 (5.9)	20.2 (-0.3)	19.1 (5.2)	19.4 (-3.4)	17.5 (-3.7)	19.3 (3.8)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2023.12.14)' 참고 및 재구성

* 주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 표기

19)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2023.12.14)'.

20) 승용차 기준 친환경차 수출 대수는 전년동월대비 28.4% 증가한 63,481대, 수출액은 50.9% 증가한 22.2억 달러.

- **(전국)** 2023년 11월 기준 국내 자동차산업 생산지수는 지난 9월 이후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수출액 역시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한 84.6억 원을 기록하며 산업이 활성화
 - **(생산지수)** 전국 자동차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0% 감소, 전월대비 7.0% 증가한 133.7로, 지난 9월 이후 증가 전환되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 **(품목별 수출액)** 국내 자동차 관련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7.0%, 전월대비 10.6% 증가한 84.6억 원으로, 승용차, 화물자동차, 전기차 등을 포함하는 완성차의 비중이 약 77.2%, 자동차부품 비중이 약 22.8%를 차지
 - 자동차산업의 부문별 전년동월대비 수출액 증감률은 △전기차(80.7%) △기타 자동차(15.8%) △승용차(11.8%) △자동차부품(3.8%) △화물차(-13.0%) △특장차²¹⁾(-64.3%) 순
 - 자동차 관련 부문은 대체로 지난 9월 이후 감소했던 수출액이 11월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및 특장차 부문은 약보합세

- **(인천)** 2023년 11월 기준 인천지역의 자동차산업 생산지수는 135.6으로 전국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5.5% 증가한 약 8.5억 달러 수준
 - **(생산지수)** 인천의 자동차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3% 감소, 전월대비 4.5% 증가한 135.6으로, 전국지수에 비해 전년동월비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
 - **(품목별 수출액)** 인천의 자동차 관련 수출액 비중은 완성차 비중이 약 86.2%, 자동차부품이 약 13.8%로 자동차 부품수출액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세부 부문별 수출액은 대체로 전국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나 전국 추이에 비해 큰 폭으로 등락
 - 부문별 전년동월대비 수출액 증감률은 △승용차(18.1%) △전기차(15.7%) △화물자동차(10.1%) △자동차부품(5.8%) △기타 자동차(-28.7%) △특장차(-70.1%) 순
 - 인천 자동차 관련 수출은 지난 9월을 기점으로 대다수의 부문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화물자동차 및 기타 자동차 부문의 수출액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표 2] 국내 자동차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률

지역	항목	'23.08	'23.09	'23.10 (p)	'23.11 (p)	'22.11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자동차 제조업	116.3	115.0	125.0	133.7	136.4	7.0	-2.0
인천	자동차 제조업	106.4	114.4	129.8	135.6	141.7	4.5	-4.3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의 자료를 이용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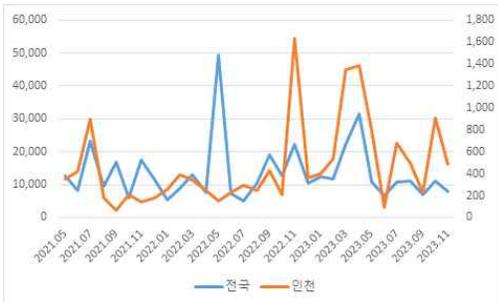
21) 특장차에는 소방차, 탱크로리, 차량운반차, 냉동탑차 등을 포함.



[승용차(MTI7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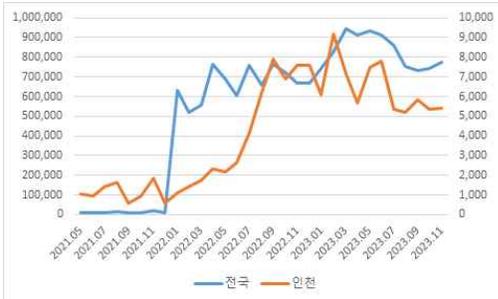
[화물자동차(MTI7412)]



[특장차(MTI7413)]



[전기차(MTI7414)]



[기타 자동차(MTI7419)]



[자동차 부품(MTI742)]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1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축은 전국 기준, 우축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2 : 2021년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승용차로 구분되었으나, 2022년부터 해당 기종이 기타 자동차로 분류되며 전국 및 인천 지표의 변동 확대

[그림 1] 자동차 품목별 수출 동향(2023.11)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2023.11 잠정)

제조업 생산지수	전국						인천					
	생산		출하		재고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반도체	131.1	25.7	127.7	41.7	188.9	25.2	153.3	11.5	160.9	14.3	130.2	-16.7
자동차	133.7	-2.0	131.9	2.3	112.7	4.3	135.6	-4.3	123.8	2.9	134.4	-42.8
기계장비	107.2	-13.8	106.9	-10.7	134.8	-14.8	148.3	-1.9	147.4	0.6	139.0	-17.5
바이오-의약	134.4	4.7	127.4	3.3	-	-	164.9	16.0	117.5	16.0	-	-
바이오-화장품	86.3	2.9	89.2	3.5	102.0	-3.5	118.6	7.7	103.2	0.8	115.6	16.2
건설 수주액 (억원, %)	전국						인천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건설	30,333	12.9	78,607	-38.2			1,125	-18.0	5,967		30.7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의 산업별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 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항목명은 순서대로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건설수주 등

2 : 생산지수는 2020년 기준 원지수를, 건설수주액은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수주액 경상가격을 이용해 작성되었으며,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 동월 대비 비율로 표기

3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고용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 2024년부터 확대·개선해 시행



#기획재정부

- 정부는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 및 공공기관의 미래 구성원 사전교육 효과가 있는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를 개선하여, 2024년에는 청년인턴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인턴 평가와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
 - 2024년에는 '23년도 운영성과 및 제도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 규모 확대 △6개월 인턴 평가 신설 △우수기관 표창 △정규직 채용지원 강화 등 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시행할 계획
 - '24년 상반기 1.3만 명 조기 채용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총 2.2만 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도록 규모를 확대하고, 정책 수요자인 청년이 원하는 6개월 단위 인턴을 1만 명 수준으로 상향
 - △제도 평가 대상에 체험형+채용형을 포함·확대 △6개월 이상 채용 실적 평가 신설 등 제도 운영 평가를 강화하고, 청년인턴 채용 우수기관에의 우수기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
 -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수인턴을 선발하여 추천서를 발급하고, 우수인턴에게 서류·필기·면접 심사 등에서 우대조치 차등 적용
 - 한편 청년의 채용 준비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인턴 채용계획을 조기 확정해 누리집에 공개하고, 청년이 원하는 공고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채용정보 잡알리오 검색 기능 등을 개선할 예정

투자

'24년 R&D 예산 확정, 신진연구자·기초연구·전략기술 지원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 정부 R&D 예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운용계획이 각각 26조 5,000억 원, 18조 2,899억 원 규모로 확정
 - 확정된 정부 R&D 예산은 기존 정부안 대비 6,271억 원 순증된 규모로, 대체로 연구 현장 고용불안 해소 및 차세대·원천 기술 연구 보강 등에 사용될 예정
 - 주된 쟁점이었던 글로벌 R&D 예산은 대체로 정부안에 따라 확정되었으며, 증액된 항목은 △기초연구 지원(2,078억 원) △출연연 연구지원(388억 원) △기업 R&D 지원(1,782억 원) △차세대·원천기술 개발(336억 원) △첨단 연구장비 구축·운영비(434억 원) 등
 - 과기정통부는 '24년 예산을 △핵심 전략기술 확보(2.4조 원) △국제협력·해외 진출 지원(1.1조 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2.8조 원) △디지털 확산(1.3조 원)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4.4조 원)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 제2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5개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 가속을 위한 민관 공동 투자 관련 내용을 담은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
- 금번 추진하는 선도사업은 산업 인공지능(AI) 얼라이언스에서 산학연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발굴되었으며, '24년부터 민관이 함께 5개 산업 분야에 1,235억 원을 투자하여 주요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

산업 분야	선도사업 주요 내용	기대효과
자동차	완성차 업체-협력사 간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는 밸류체인 최적화 시스템 구축	중복 품질검사, 공급망 차질 등 불필요한 비용 절감
조선	선박 및 항만·물류·기자재 데이터가 실시간 연계되는 스마트십 플랫폼 구축	항만 내 물류 최적화 및 기자재 고장 사전 예측 정비 등 스마트십 서비스산업 생태계 구축
이차전지	양극재 소성공정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제어 기술 개발	숙련 작업자에 대한 의존도 경감
부리산업	대기업의 플라스틱 사출생산 인공지능(AI) 제어 노하우를 협력사와 공유	숙련 작업자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고품질 전장부품 균일 생산 지원
기계	공장 내 기계장비·로봇·설비 등의 발생 데이터를 국제표준 기반으로 통합·연계	생산·물류 최적화 및 고품질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한 인공지능(AI)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2024년부터 신규 시행 및 개선되는 금융제도의 주요 내용 및 변경 시기에 대한 정보를 담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
- 금융위의 발표에 따르면 금번 제도 개선은 △금융소비자 부담 경감 △투자자·소비자 보호 강화 △규제 합리화 △투명성 향상 및 책임 강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이루어질 예정
 - 소비자 부담 경감 및 금융 지원을 위해 ①대환대출 이용 대상('24.1월) 및 저금리 대환('24.1분기) 확대 ②팩토링 확대('24.1월) ③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24.2분기) 등의 정책을 시행
 - 금융 편의성 향상 및 투자자·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마련('24.1월)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 개선('24.1분기) 및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24.10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월) △선불업 등록 대상 확대('24.9월) 등을 시행 예정
 - 또한 △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24.1월)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24.1월) △DSR 정교화('24년) △금융보안규제 선진화('24.1분기) 등을 통해 금융 규제를 합리화하고, △불공정거래 대응 △회계·공시 △내부통제 등을 강화하여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향상할 계획
- 변경되는 금융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fsc.go.kr) 참조

#교육부

- 교육부가 △'늘봄학교' 본격 도입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피해교원 보호 등 조치 강화 △산·학·연 '협동수업' 제도 신설 등 2024년부터 시행되는 교육제도 관련 정책을 소개

구분	주요 내용
'늘봄학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 •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할 예정
영유아 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3과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 • 개별 학생의 성취 수준 진단 결과에 따라 SI 맞춤형 학습, 학습 관리 튜터링 연계 등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및 피해 학생 보호가 강화된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등 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축소·은폐 금지 △보호자 등의 악성 민원 및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 범죄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간주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활동 관련 개선 사항이 3월 28일부터 시행 예정
산학연 '협동수업' 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공포 시 대학생이 산업체·연구기관에서 대학 정규수업 수강이 가능해질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대상 자금 5조 원, 소상공인 대상 자금 3.7조 원으로 구성된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8.7조 원의 지원계획을 발표
 -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리의 장기융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혁신창업 사업화자금(2.0조) △신시장진출 지원자금(0.4조) △신성장 기반자금(1.7조) △긴급경영안정자금(0.2조) △재도약지원자금(0.5조) △밸류체인 안정화자금(0.1조) 등을 통해 총 4조 9,575억 원을 공급할 계획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일반소상공인(1.1조) △취약소상공인(1.8조) △유망소상공인(0.8조)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사항별 지원자금을 신설하여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예정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1월 8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

#보건복지부

○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

- 저출산 5대 핵심 분야란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선정한 ①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춤추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⑤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등으로, 금번 확대되는 지원 사항은 각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 폐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등 임신 전 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 • △다자녀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확대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보호출산·출생통보제 시행 등을 통한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 △부모급여 인상 △자녀장려금 세제지원 확대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취약 가정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화 • 늘봄학교 도입, 시간제보육기관 확대,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급 등 돌봄·교육지원 내실화 • 영유아 의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및 세액공제 확대, 소아의료체계 강화 등 건강한 성장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3+3 육아휴직제를 6+6으로 강화하고, 6개월 간 부모합산 최대 3,900만 원 지원 • 난임치료 휴가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횟수, 각 휴가 급여 지원 확대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금리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을 신설 • 대출 시행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우대금리 및 특례기간 연장 적용

#법무부

○ 법무부가 인구변동 등을 반영한 산업 분야별 인력 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산업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선정한 주요 분야에 대해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 사전 공표제'의 시범운영을 시작

- 금번 시범사업은 국내 인력난 대응을 위해 비전문인력 및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더욱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대응책
- 이에 따라 그간 별도의 총량 관리 없이 운영되었던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행행(E6) 비자는 지금까지와 같이 유지하되, 신규 도입 분야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및 비전문인력 비자에 대해서는 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
 - 제도 개선에 따라 신규 도입된 △요양보호사(E72)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E73) △송전 전기원(E73) 등과 기존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비자는 '24년 연간 발급 한도가 제한·관리할 예정

참고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24년 글로벌 트렌드 :분열하는 세계와 커지는 그림자 리스크」, 경제주방, 2023.12.29.
- The Economist, 「2024 세계대전망」.
- 한국경제신문, 「2024 산업대전망」.
- 권기대, 「2024 비즈니스 트렌드 코리아」.
- KOTRA, 「2024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 김재필, 「2024 IT 메가 트렌드」.
- Forbes, “15 Global Trends For 2024”, 2023.12.11.
- Forbes, “Navigating The Future : 10 Global Trends That Will Define 2024”, 2023.10.31.
- Euromonitor International, 「Top Global Consumer Trend for 2024」, 2023.11.16.
- Gartner, “Gartner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4”, 2023.10.16.
- IT DAILY, “가트너, 2024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 발표”, 2023.10.17.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23.10.05.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2023 생성형 AI 주요 이슈와 의미」, 2023.0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3년 제48차 G7 정상회의 주요 논의 결과와 시사점」, 2023.05.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 및 2024년 전망 발표”, 2023.12.17.
- LG케미토피아, “[화학개론] 인류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바이오 산업”, 2016.10.27.
- 조선비즈, “[2024 신약전망(상)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시장이 열린다”], 2023.12.24.
- 전자신문, “‘먹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시장 열린다…FDA 첫 승인”, 2023.04.28.
- 메디게이트 뉴스, “2023년 미국 FDA CBER가 승인한 세계 최초 의약품들은”, 2023.12.27.
- 데일리팝, “K-마이크로바이옴 성공조건은 신속심사·지속투자”, 2023.01.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혁신을 이끌 초격차 기술 확보전략, ‘인공지능·첨단바이오 전략로드맵’ 수립”, 2023.10.31.
- 삼일PwC경영연구원, 「미리보는 CES 2024, All Together, All On」, 2023.12.
- 메조미디어 인사이트 M·CJ AI 센터, 「2023년 소비 트렌드 시리즈-03, 개인맞춤형 서비스」, 2023.07.
- 나스미디어, 「2024년 디지털 미디어와 마케팅 전망」, 2023.11.17.
-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무역연구원, 「극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라 - 2024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2023.12.28.
- 글로벌이코노믹, “영국, 최근 反친환경 움직임에 오염 비용 절감”, 2023.08.03.
- 다키포스트, “‘유럽 결국 내연기관차 유지하나’ 독일 친환경차 도입 반대, 이유는?”, 2023.08.24.
- 한국경제, “트럼프 2기도 ‘美 중심주의’...관세 폭탄에 친환경 정책 폐기”, 2023.12.11.
- 환경부, “일회용품, 소상공인 부담 해소하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감량”, 2023.11.07.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매월호)”.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공기관 청년인턴 2만 2000명 채용…6개월 인턴 1만명으로 확대”, 기획재정부, 2023.12.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정부R&D 예산 26조 5000억 원 확정…기존 대비 6217억 순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2.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한다…민관 공동 1235억 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2023.12.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가능…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 금융위원회, 2024.01.0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방과후+돌봄 ‘늘봄학교’ 본격 도입…학폭·교권 조치 강화”, 교육부, 2024.01.0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조 7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 중소벤처기업부, 2024.01.0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0~1세 영아기 지원금 2000만원+ α …“저출산 지원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 2024.01.0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외국인력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올해부터 첫 시범운영”, 법무부, 2024.01.05.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호(2024.01.12)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일 2024년 01월 12일
주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